

KIA 승률 '가뭇'에도 기록 '풍년'

양현종

두달간 개인 9연승 행진
6년 연속 10승·100타삼진
통산 1400타삼진·1700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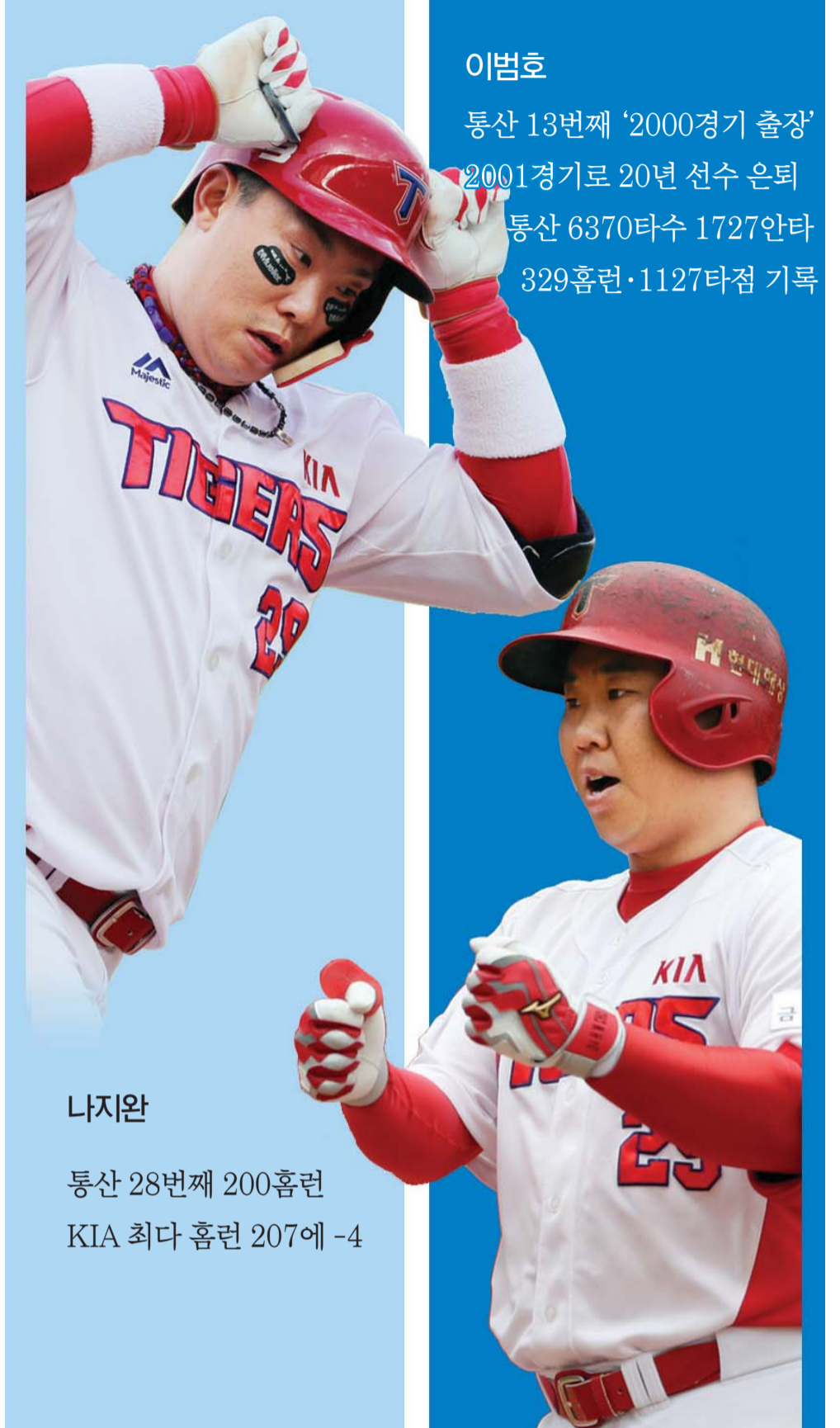
최형우

역대 22번째 900득점
1700안타·3000루타
12년 연속 10홈런



김주찬

21번째 6000타수
14번째 1800안타
11번째 350개 2루타
통산 13번째 1000득점



이범호

통산 13번째 '2000경기 출장'
2001경기로 20년 선수 은퇴
통산 6370타수 1727안타
329홈런·1127타점 기록

나지완

통산 28번째 200홈런
KIA 최다 홈런 207에 -4



아쉬움에도 '호랑이 군단'의 의미 있는 기록들은 쌓였다.

KIA 타이거즈의 2019시즌 전반기를 돌아보면 아쉬움만 가득하다. 시즌 초반 '에이스' 난조와 야수 베테랑들의 부진이 겹치면서 패배의 날이 계속됐고, 무기력한 플레이에 팬심은 싸늘하게 식었다.

결국 시즌 중반 사령탑이 자진 사퇴하는 등 어수선하게 2019시즌이 흘러갔다.

전반기 95경기를 치른 KIA의 성적은 39승 1무 55패. 승률은 0.415에 불과했다. 순위는 8위로 7

위 삼성과는 반 경기차다. 그리고 '가을잔치'의 마지막 노선인 5위(NC)와는 8.5경기 차다.

하위권을 전전했던 전반기였지만 기록들은 양산됐다.

투수 부문에서는 양현종이 '기록 제조기'였다. 초반 페이스가 좋지 못했던 양현종은 5월 19일 한화를 상대로 2승을 신고한 뒤, 반전의 시간을 보냈다. 양현종은 7월 12일 한화전까지 개인 9연승 행진을 하면서 기록 누적에 속도를 냈다.

7월 12일 승리는 양현종의 130번째 승리(KBO 통산 10번째)이기도 했다. 또 이날 양현종은 통산 10번째 6년 연속 10승 투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1400타삼진(8번째·5월 8일 두산전), 1700이닝

(21번째·5월 31일 키움전), 6년 연속 100타삼진(5번째·7월 5일 LG전)도 '에이스'다운 기록이다. 타석에서는 역시 '꾸준함'의 대명사인 최형우의 기록들이 채워졌다.

3월 28일 한화전에서 통산 22번째 900득점을 만든 최형우는 같은 날 2900루타(16번째)도 완성했다.

최형우의 1700안타(23번째)는 5월 5일 창원에서 만들어졌다. 5월 31일 키움전에서는 3000루타(15번째)를 넘어섰고, 6월 7일 창원 원정에서는 12년 연속 10홈런(7번째)을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나지완은 '타이거즈 홈런왕'을 향한 카운트다운

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18일 사직원정에서 200번째 담장을 넘겼다. 통산 28번째 200홈런 주인공이 된 나지완은 이후 4개의 한방을 보태, 타이거즈 통산 최다 홈런(207개·김성현) 기록 경신에 4개를 남겨두고 있다.

부진과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20년 차' 김주찬이지만 기록 일지에는 여러 차례 이름이 올라갔다. 4월 20일 두산전에서 6000타수(21번째)를 채운 김주찬은 5월 2일 삼성전에서는 14번째 1800안타 주인공이 됐다.

김주찬은 5월 29일 한화전에서 350번째 2루타(11번째)를 날렸고, 6월 12일 삼성전에서는 1000번째 홈을 밟았다. 통산 13번째 1000득점.

그리고 지난 2일 NC전에서는 2700루타(23번째)를 넘었다.

KIA의 전반기 마지막 기록은 '영원한 캡틴' 이범호가 찍었다.

그는 7월 11일 고향 대구에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자신의 마지막 목표였던 '2000경기 출장'을 이뤘다. 통산 13번째.

이범호는 이어 7월 13일 친정 한화를 상대로 은퇴 경기와 은퇴식을 가지면서 프로 20년의 여정을 2001경기로 마무리했다. '선수' 이범호의 기록은 6370타수 1727안타, 타율 0.271, 329홈런 1127타점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PGA 2주 연속 메이저 대회 열린다

25일 에비앙 챔피언십

내달 1일 브리티시 오픈

박인비 '에비앙 잘 맞아' 기대감

고진영·이정은 등 우승 후보

여자골프 메이저 대회가 2주 연속 열린다.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410만달러)이 25일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파71·6527야드)에서 막을 올리고, 8월 1일부터는 AIG 여자 브리티시 오픈(총상금 450만달러)이 영국 잉글랜드 밀턴 킨스의 워번 골프클럽(파72·6585야드)에서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로 펼쳐진다.

메이저 대회가 2주 연속 열리는 것은 보기 드물다. 지난해에는 봄에 ANA 인스퍼레이션을 시작으로 6월 US오픈, 7월 KPMG 여자 PGA 챔피언

십, 8월 브리티시오픈, 9월 에비앙 챔피언십으로 메이저 대회가 이어졌다.

그런데 올해 에비앙 챔피언십이 개최 시기를 7월로 앞당기면서 메이저 대회 사이 간격이 좁아졌다.

에비앙 챔피언십이 여름에 열리게 된 것을 반기는 선수들은 역시 '골프 여제' 박인비(31)다.

박인비는 이달 초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우승했을 때도 여름에 대회가 열렸다. 그때 기억을 다시 한번 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인비는 이 대회가 메이저로 승격하기 전인 2012년에 정상에 올랐는데 그때 대회가 올해처럼 7월 마지막 주에 열렸다.

이후 박인비는 2015년 브리티시오픈을 제패하며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으나 일부에서 '에비앙 챔피언십이 메이저가 된 2013년 이후로는 우승하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박인비는 LPGA 투어 통산 19승을 기록 중이라 이번 '메이저 2연전'에서 1승을 보려면 20

승을 메이저로 장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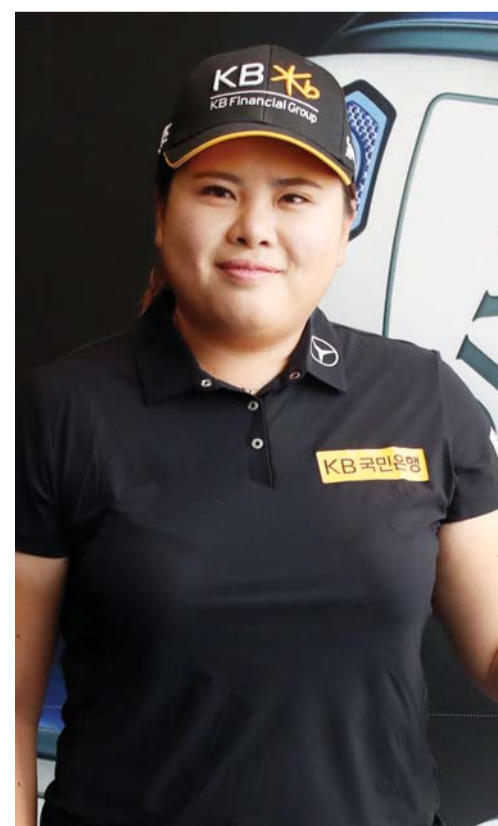
박인비는 "에비앙이 사실 저와 잘 맞는 코스는 아니다. 하지만 그린 등 코스가 조금씩 바뀌면서 어려워지고 변별력이 생겨 난도가 있는 코스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플러스 요소가 생겼다"며 "그린에 적응하는 부분과 샷 정확도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자골프는 최근 11차례 메이저 대회에서 각각 다른 11명의 우승자가 나올 정도로 혼전 양상이다.

특히 지난달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는 당시 세계 랭킹 100위 밖에 있던 해나 그린(호주)이 '깜짝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우승 전망이 쉽지 않아졌다.

그러나 박인비 외에 올해 ANA 인스퍼레이션을 제패한 고진영(24), US오픈 우승자 이정은(23)에 세계 랭킹 1위 박성현(26) 등 한국 선수들이 우승 후보로 지목된다.

/연환뉴스



박인비

양현종·안치홍·박찬호·문경찬·김기훈

'프리미어12' KIA 5명 승선

KBO가 '2019 WBSC 프리미어12' 한국 야구 대표팀 1차 예비 엔트리를 발표했다.

인원 제한이 없는 이번 예비 명단에는 투수 43명, 포수 6명, 1루수 6명, 2루수 5명, 3루수 5명, 유격수 6명, 외야수 19명 등 총 90명이 선발됐다.

KIA타이거즈에서는 양현종·문경찬·김기훈(이상 투수) 안치홍·박찬호(이상 내야수) 등 5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BO는 9월 WBSC에 프리미어12 예비 엔트리 45명의 명단을 제출하게 된다.

한편, 대표팀 김경문 감독과 김병호 전력분석총괄코치, 이종열 코치 및 전력분석팀은 오는 27일부터 팬아메리카 대회가 열리는 페루 리마로 출국한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포함된 쿠바, 캐나다를 비롯해 프리미어12 참가국인 도미니카, 푸에르토리코 등의 전력을 분석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